

## [신약 속 미로 찾기 14]

###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한상원 목사 / 2000 / 페이지수: 1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for My Father is greater than I)”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신성에 있어서 삼위일체(Trinity)를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개를 가우뚱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6문)에 보면 삼위일체는 이렇게 정의되고 있다.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이 계시다. 그리고 이 세 인격은 한 하나님으로서, 그 본질은 같고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등하다.”

그렇다면 성자(聖子)께서는 어떻게 성부(聖父)가 성자보다도 크시다(헬/meizon)고 단언할 수 있는가? 아리안파와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는 구절로 미루어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못한 하위(下位)의 신(神)이라’고 주장한다. 이 한 구절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 그들의 오용된 신학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의 피조물로 만드는 결과이고, 신앙의 형태에 있어 다신교(多神敎)로 유도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로 비성경적이며 이단적인 사고이다.

지금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신성(神性)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로서의 인성(人性)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당하고 죽기 위하여 오셨는데,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실 수도, 죽으실 수도 없다-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는 오직 인자(人子)로서만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참되고 순전한 인성(人性)을 취하시지 않고는 예수께서는 결코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진 자로서 아담 종족의 대표가 되실 수 없었다.

그렇기에 인자로서의 그는 분명히 그 신분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었다. 이사야 52장 13절 53장 12절에서 보여주듯이, 그는 오직 여호와의 종(servant)이 됨으로써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었다. 종은 그 정의(定議)에 있어서 결코 주인보다 클 수 없다. 따라서 예수께서 성부-그 권위와 신분에 있어서 당연히 인자보다 더 크신-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정복한 인자(人子)로서 이다.

그렇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요 8:58, 10:30).

이 진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50년 전에도 예언된 사실이다. “이는 한 아기(child)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Son)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Mighty God)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6).

\* 출처 : QT신문